

■ 대중가요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사



<사진>뉴욕 카네기홀 '토크 콘서트. 대중가요로 본 한국 근대사회의 발전상' 김장실 공연 2015.11.03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강연자 : 김장실(전 국회의원)

김장실 이력

1. 학력

- 1979년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198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1992년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2. 경력

- 1979년 제 23회 행정고시 합격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사정, 정무) 및 비서실장 보좌관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
- 문화공보부 예술국장, 종무실장, 제 1 차관
- 예술의 전당 사장 및 한국관광공사 사장
- 제 19대 국회의원
-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 및 원장 직무대리

3. 저서

- 트롯의 부활: 가요로 쓴 한국 현대사
- 따스한 햇볕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수필집)



목 차

1. 한국 대중가요의 탄생
2.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그린 <황성옛터>
3.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 진출 시대를 노래한 <꽃마차>
4. 해방 조국의 희망을 펼친 <귀국선>
5. 피난살이의 애환을 그린 <이별의 부산 정거장>
6. 전쟁고아들의 서러움 삶을 노래한 <가는 봄 오는 봄>
7. 개발연대 한국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동백 아가씨>
8. 한국인의 국제적 이산과 그 아픔을 노래한 <기러기 아빠>
9. 성공적 산업화와 보통사람들의 꿈을 그린 <님과 함께>
10. 억압적 유신체제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노래한 <고래사냥>
11.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사업과 연계된 <돌아와요 부산항에>

1. 한국 대중가요의 탄생

1) 인기 대중가요와 인간의 삶, 그리고 시대정신

- 대중적 인기를 누린 가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사회심리와 욕망을 반영
- 대중가요는 당대 대중의 공용어, 공동문법 구실
 - 한 시대를 풍미한 인기 가요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

2) 근대 이전 한국인의 노래

- 우리 선조들은 시조, 가사, 민요를 부르며 지냈음
- 조선조 말 사설시조와 판소리가 등장

3) 개화기 유행창가의 탄생

- 전문인들의 공연인 민요, 판소리 등은 월각사 등 극장, 기방, 음반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상업화의 길로 감
-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 ‘유행창가’ 탄생
 - 1908년 최남선의 ‘경부 철도가’가 나온 이후 ‘장한몽가’, ‘희망가’ 등이 연이어 등장



4) 서양음악의 도입

- 한일합방 이후 각급 학교에서 서양노래를 가르침
- 1920년대 초 유행창가와 동요(오빠생각), 가곡(봉선화) 등 외래 노래 양식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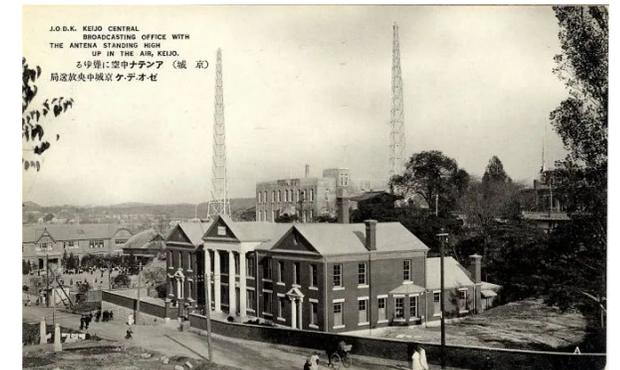
5) 한국 대중음악의 탄생

- 1926년 일본에서 소프라노 윤심덕,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푸른 물결’ 곡에다 직접 작사한 ‘사의 찬미’를 취입
- 관부연락선을 타고 귀국 도중 현해탄에서 그의 애인 김우진과 동반자살, 주요 일간지 연일 보도 후 음반 인기리에 판매 -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를 우리나라 대중들이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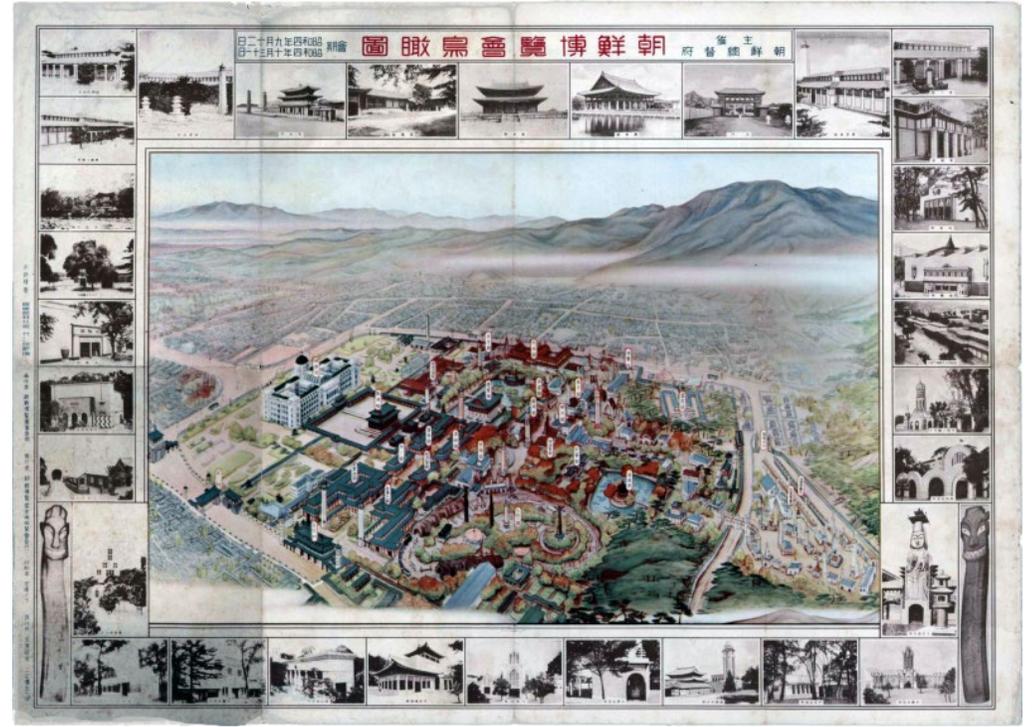
6) 일제시대 대중가요의 발표 방식

- 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
- 1927년 경 미국 음반사 컬럼비아, 빅터의 자회사가 조선음반을 본격 생산
- 공연을 통해 발표된 가요가 인기를 얻으면 음반으로 취입(예: 황성옛터, 낙화유수 등)



7) 대중가요와 식민지 근대 경험의 확산

- 1920년대 식민지 근대의 경험이 일상으로 확산
 - 1929년 조선박람회 150만 명 참여
 - 1930년대 할리우드영화 수입 급증, 레코드와 유성기 확산
- 자유연애, 단발, 하이힐, 재즈 등 서구브랜드 상품의 주요 소비자가 충무로, 명동 일대에 모인 젊은 세대 (모던 보이, 모던 걸)
- 1930년대 약간의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개화한 도시인들이 대중음악 스타일로 정립된 트롯과 신민요를 소비
 - 1960년대 이후 저학력·하층민 양식으로 인식되는 것과 대조



2.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그린 <황성옛터>

(왕평 작사, 전수린 작곡, 이애리수 노래, 1928년)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 잠 못 이뤄
구슬픈 벌레소리에 말없이 눈물져요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을 찾으려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나는 가노라 끝도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처가 없어도
아! 한없는 이 심사를 가슴 속 깊이 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옛터야 잘 있거라



1) 강압적 일제 식민통치

- 헌병과 경찰을 동원한 무단통치 실시
- 3.1 운동 등 독립운동은 일제의 압도적 무력에 굴복



2) 일제 하 2등 국민 조선인의 서러움

- 경제적 수탈, 민족문화 말살은 물론 조선인의 멸시(조센징) 분위기 확산,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비애를 절절히 느낌
- 식민지 근대화로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인간적 소외’도 경험



3)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이 비탄조의 노래로 나타남

- 조선 민중의 자학과 자기연민의 감정이 과잉된 형태로 나타남
- 이는 무력하고 자학적인 여성(홍도야 우지마라), 나그네(나그네 설움), 실향과 방랑(황성옛터, 타향살이 등) 등으로 표출

홍도야 울지 마라
이시구 작사
김영준 작곡
민중가요

Cha Cha Cha

타향살이
이시구 작사
김영준 작곡
민중가요

Slow Waltz

나그네 설움
고려성 작사
이시구 작곡
민중가요

Fox Trot

4) '황성옛터'의 탄생

- 1927년 순회악극단 연극사는 만주와 한반도 서북지방 공연을 끝내고, 황해도 배천에서 공연 준비
- 비 때문에 며칠 계속 여관에 유숙
- 황폐화된 고령왕궁 터를 상상하며 작곡한 전수린의 곡을
왕평이 작사한 이 노래는 나라 잃은 조선인의 비애를 표현
- 막간 가수 이애리수가 부른 이 노래가 인기를 얻으며,
1932년 빅터레코드사에서 음반으로 출시



3.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 진출 시대를 노래한 <꽃마차>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 1939년)

노래하자 꽃서울 춤추는 꽃서울
아카시아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하늘은 오렌지색 꾸냥의 귀걸이는 한들한들
손풍금 소리 들려온다 방울 소리 울린다

울퉁불퉁 꽃서울 꿈꾸는 꽃서울
알곰삼삼 아가씨들 콧노래가 들려온다
한강물 출렁출렁 숨 쉬는 밤하늘엔 별이 총총
색스폰 소리 들려온다 노래소리 들린다

푸른 등잔 꽃서울 건설의 꽃서울
뽀족 신발 바둑길에 꽃양산이 물결친다
서울의 아가씨야 내일의 희망안고 웃어다오
만돌린 소리 들려온다 웃음소리 들린다



1) 조선인들의 초기 만주 진출

- 1860년~1910년 서북지역인들 도강, 농사나 수렵채취 활동
 -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다, 점차 봄에 가서 가을에 돌아오는 '계절 출가 이민' 방식으로 전환
 - 그 이후 압록강, 두만강 주변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음
- 황무지를 개간한 조선인들에게 청나라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거주를 묵인
 - 1869년까지 10만여 명, 1909년에는 18만 5천여 명 거주
 - 1920년 전후 간도에서 땅 구입이 가능하면서 1925년 53만명, 1930년에는 60만 명 정도 동북 3성에 거주



2)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 파라다이스론' 유포

- 일제, 1931년 만주사변 후 1932년 괴뢰 만주국 건립
- 일제는 매스컴을 통해 '만주 파라다이스론'을 유포
 - '마르지 않는 보물단지', '풍요의 뿔', '샘솟는 자원의 땅', '별판을 달리는 유랑마차' 등 꿈과 낭만의 장소로 묘사
- 식민지 조선에도 일간신문은 물론 동광, 삼천리 등 잡지와 영화 (예: 복지 만리)를 통해 '만주 봄'을 고조시킴



3) 조선인의 강제이주정책도 병행

- 1936년 만주국이 작성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에 따르면 매년 1만 가구(5만 명)을 만주에 보낼 계획
- 이에 따라 재만 조선인은 1942년 151만 명, 1944년 165만 명, 1945년 216만 명으로 증가

4) ‘꽃마차’의 탄생

- 이즈음 ‘울리는 만주선’, ‘복지 만리’, ‘대지의 항구’ 등 만주관련 노래가 많이 나옴
- ‘꽃마차’는 일제 하 만들어진 만주찬가 중의 대표곡 중 하나
 - 아세아악극단의 북선지구 공연에 동행한 가수 진방남(작사가 반야월)이 하얼빈에서 작사한 노래를 이재호가 작곡
 - 남북 분단과 중국의 건국 이후 이념대결이 심화되자 반야월 작사가는 가사를 일부 수정
 - 그림에도 불구하고 꾸냥, 손풍금, 마차, 오렌지색 하늘 등 중국 동북지역을 연상하는 가사가 잔존



간도 개척민 부락 전경

노래하자 춤을 추자 건설하는 꽃 서울
아카시아 숲속으로 아가씨는 웃고 가네
하늘도 새파랗고 가슴도 새파랄네
방울소리 들려오네 손풍금은 숨을 쉬네

노래하자 꽃 서울 춤추는 꽃 서울
아카시아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하늘은 오렌지색 꾸냥의 귀걸이는 한들한들 손풍금 소리 들려온다 방울 소리 들린다

울퉁불퉁 꽃 서울 꿈꾸는 꽃 서울
알곰삼삼 아가씨들 콧노래가 들려온다
한강물 출렁출렁 숨 쉬는 밤하늘엔 별이 종종 색소폰 소리 들려온다 노랫소리 들린다

푸른 등잔 꽃 서울 건설의 꽃 서울
뽕족 신발 바둑 길에 꽃 양산이 물결친다
서울의 아가씨야 내일의 희망 안고 웃어다오 맨들린 소리 들려온다 웃음소리 들린다

4. 해방 조국의 희망을 펼친 <귀국선>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이인권 노래, 1949년)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크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백의동포 찾아서
얼마나 싸웠던가 우리 해방을
얼마나 찾았던가 우리 독립을
흰 구름아 날아라 바람은 불어라
귀국선 파도 위에 새 날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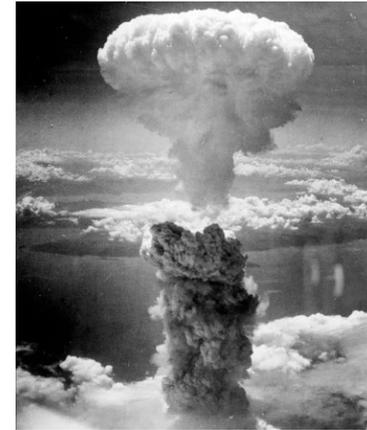
1)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 구축

-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킴
- 전시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한 일제는 물자 공출은 물론 징병, 징용, 정신대 등 많은 한국인들이 전선으로 끌고 감
- 친일 진중가요만 양산, 한국 대중가요의 암흑기



2) 일제의 무조건 항복 선언

- 초기 승전을 하던 일제는 압도적인 국력의 미국에게 점차 밀림
- 일본 본토 폭탄을 투하하며, 진격을 준비하던 미군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3) 거짓말처럼 온 일제의 무조건 항복 선언(1945년 8월 15일)

- 함석헌: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
- 이승만: “ 여보,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4) 해방의 환희

- 낮은 라디오 및 신문 보급률로 해방 당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음
- 8월 15일 밤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8월 16일부터 엄청난 인파가 거리로 나와 해방의 감격을 표현



5) 재외동포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의 꿈을 안고 귀국

- 1945년 8월~1946년 3월까지 재일동포 약 140만 명~170만 명 귀국
- 만주지역 재중동포 약 90만 명 귀국

6) '귀국선'은 해방의 환희를 표현한 대표곡

- 해방과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한 여러 노래가 나옴
 - 1945년 '4대문을 열어라'(박영호 작사, 김용환 작곡),
1946년 '해방된 역마차'(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 '귀국선'은 그런 노래의 대표곡
 - 귀국환영단이 부산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 등을 부르는 것을 보고 손로원이 작사
 - 처음에는 가수 신세영이 불렀으나 별무 반응
 - 1949년 이인권이 재취입하면서 크게 히트



5. 피난살이의 애환을 그린 <이별의 부산정거장>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53년)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서울 가는 십이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없이 내다보는 창가에 등불이 쏜다
쓰라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매어 소리 높여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자 봄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 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1) 북한의 기습 남침(1950년 6월 25일)

-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기획하고, 실행한 전쟁
 - 국토완정을 언급한 김일성은 1949년 3월 이후 여러 차례 모스크바와 북경을 오가며 남한 선제공격을 논의
 - 1950년 5월 13일 스탈린의 진위를 확인한 모택동도 미군 개입 시 중국 파병을 확인
- 전쟁 준비 없는 남한의 초기 패주, 중반 역전
 -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 함락. 임시 수도는 대전, 대구를 거쳐 8월 17일 부산으로 옮김
 - 미국은 1950년 6월 27일 북한에 선전포고, 7월 7일 맥아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창설
 -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8선 돌파, 10월 19일 평양 수복
- 중국군의 한국전 개입
 - 10월 하순 매복한 중국군이 11월 15일부터 반격 개시
 - 흥남 철수를 한 유엔군과 국군은 1951년 1월 4일 서울에서 후퇴
-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종전



2) 고난의 연속인 부산 피난살이

- 부산은 한국전쟁 중 1000일 간 한국의 임시수도 역할
- 공식적으로 인구 50만 명의 부산에 수백만 명의 피난민 집결
- 주택난, 수도난, 식량난 등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 물 한 동이와 꿀꿀이죽으로 연명
- 타관객지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도 짝든 남녀 간의 사랑

3) 부산 피난살이의 애환을 그린 '이별의 부산정거장'

- 1952년 가을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술을 마시던 작사가 유희와 작곡가 박시춘은 피난살이 애환을 그린 노래를 만들기로 함
- 서울로 귀환하는 이들의 신나는 기분과 부산에 정든 사람을 두고 가는 아픔, 남은 자들의 서러움을 주제로 한 노래를 완성
- 1953년 남인수가 유니버설레코드사에서 취입, 공전의 대히트



6. 전쟁고아들의 서러움 삶을 노래한 <가는 봄 오는 봄>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최숙자 노래, 1959년)

비둘기가 울던 그 밤에 눈보라가 치던 그 밤에
어린 몸 갈 곳 없어 닳선 거리 헤매이네
꽃집마다 찾아봐도 목메이게 불러봐도
차가운 별빛만이 홀로 새우네 울면서 새우네

하늘마저 울던 그 밤에 어머니를 이별을 하고
원한의 십년 세월 눈물 속에 흘러갔네
나무에게 물어봐도 돌부리에 물어봐도
어머님 계신 곳은 알 수 없어라 찾을 길 없어라

그리워라 어머니여 꿈에 젖은 그 사랑이여
옥이야 내 딸이야 다시 한번 안겨다오
목이 메어 불러봐도 한이 많은 옛 노래여
어두운 눈물이여 멀리 가거라 내일을 위하여



1) 한국전쟁으로 10만 명의 전쟁고아와 50만 명의 전쟁미망인 발생

- 가정의 파괴와 가족의 해체가 격렬하게 진행
- 전쟁 미망인은 1인당 평균 2.07 명의 아동과 시부모 봉양 등 가장의 역할을 수행
 - 행상과 식모살이 등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일함
 - 감당하기 힘들어 가정을 버리면서 다시 고아가 발생



2)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삶과 언론 보도

- 동냥, 구두닦이, 신문팔이 등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면 다함
- 한국일보의 전쟁고아 지원활동

3) 전쟁고아, 가정집에 입양되거나 고아원에 수용

-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남의 아이 입양은 어려움
- 외국 자선기관 등이 고아들을 돌봄



4) 전쟁고아들의 해외입양

- 1958년~2000년 사이에 해외 입양된 아동은 14만 5698 명임

5) 1950년대 고아 노래와 ‘가는 봄 오는 봄’의 탄생

- 1957년 ‘어린 결심(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남인수 노래)’,
1958년 ‘생일 없는 소년(최치수 작사, 김성근 작곡, 김용만 노래)
- 1959년 ‘가는 봄 오는 봄(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최 숙자 노래)’
 - 오향영화사를 설립한 박시춘의 3번째 영화 작품
 - 권영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최무룡, 문정숙, 이민, 전계현 등이 출연한 영화의 주제곡
 - 1967년 장일호 감독이 김지미, 윤정희, 남진 등을 출연시켜 <그리움은 가슴마다>로 리메이크하여 동명의 영화와 주제가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자 노래) 모두 히트



7. 개발연대 한국인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동백 아가씨>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 이미자 노래, 1964년)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갭게 멍이 들었소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신 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 오려나



1)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작업과 '한강의 기적'

- 신발, 의류 등 싼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산업화 추진
 - 농촌의 과잉인력을 도시의 산업역군으로 유치
 - 도시는 희망의 상징이자 동경의 땅
 - 대규모 이촌향도 현상 발생
- 1962년 4700만 달러, 1964년 1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수출 등 경제기적 연출



2) 출세를 위해 뛰고 또 뛰어 출세의 상징인 <회전의자>에 앉음

- 한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계층 이동 유발
- 야망과 실력을 겸비한 많은 사람들, 기회의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출세, 성공의 상징인 <회전의자>에 앉게 됨



3) 사귀던 남자의 출세로 순정에 바탕을 둔 남녀 간의 이별로 귀결

- 도시로 가 출세한 남성은 유력 가문의 여성과 결혼
 - 농어촌에 남은 여인은 버림받게 됨
- 이런 현상을 단골 소재로 한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의 상징 구도
 - 섬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함
 - 남자는 서울로 가서 출세하고, 여인은 섬에 홀로 남음
 - 남자의 출세라는 바다 때문에 여인은 다가갈 수 없음
 -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와 ‘섬마을 선생님’,
 - 남진의 ‘가슴 아프게’,
 -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등이 대표적인 노래



4) <동백 아가씨> 영화와 노래의 탄생 과정

- 1963년 방송작가 추식의 동아방송(DBS) 라디오 드라마 <동백 아가씨> 인기리에 방송
- 1964년 김기 감독, 신성일, 엄앵란을 캐스팅하여 부산 다대포, 울릉도에서 영화 촬영
-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 이미자 노래의 동 영화의 주제가는 35주 동안 방송인기차트에서 1위
- 왜색조라며 1965년 방송금지, 1968년 음반제작, 판매, 공연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음반 200만 장 판매
 - 김정수 지구레코드 사장, KBS 일요스페셜을 통해 증언
-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는 한 많은 한국인의 ‘곡비’ 역할(이동순 시인)



8. 한국인의 국제적 이산과 그 아픔을 노래한 <기러기 아빠>

(김중희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자 노래. 1969년)

산에는 진달래 들에는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 구름 애기 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아 아 아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하늘엔 조각달 강엔 찬바람
재 넘어 기적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엄마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아 아 아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1) '기러기'에 대한 사회적 상징의 변화

- 1960년대 후반 '기러기'는 '부모 잃은 아이'를 상징
- 1980년부터 이혼한 엄마들을 통상 '기러기'라고 함
- 2000년대 이후 '기러기 아빠'는 자녀교육을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홀로 뒷바라지를 하는 아버지를 말함
- 월남전 참전과 중동건설 붐으로 인한 국제적 이산은 '기러기 아빠'의 탄생을 알리는 <전조적 현상>



2) 월남전 참전과 월남특수

- 1965년부터 월남전 참전(4만 7872 명)
 - 1965년~1973년까지 31만 2853 명 참전
- 현대건설, 한진상사 등 한국기업들 월남특수를 누림
 - 1966년부터 1973년까지 10억 달러 외화 획득

3) 중동건설 붐에 편승

- 1969년 닉슨독트린 발표 이후 미군의 월남전 개입 감소, 한국 기업들의 월남특수도 사라짐
- 1972년 삼환기업의 사우디 진출 이후 한국 건설회사들 줄지어 중동 진출
 - 1981년 59개 건설회사, 16만 명이 중동건설 현장에서 일함
 - 1977년 2억 7천만 달러, 1978년 4억 달러 국내 송금
- 외로움에 지친 중동건설 근로자 부인들의 탈선(유형업소 출입, 재산 탕진, 이혼)이 사회문제화

國力일구는 熱砂의 韓國人들



故國편지로 피로잇어 國內 물가안정이 가장 큰 바램



비오면 收入준다 오버타임自請의 苦勞



中東근로자들의 피담 2時 : 現地 現포

4) 조기유학 붐과 기러기 아빠의 양산

- 1990년대 출세의 지름길인 명문대 입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기유학 분위기 형성
- 초.중.고를 자퇴하고 외국유학을 간 학생은 2005년 2만 1000 명, 2007년 2만 7668 명(초등학생이 1만 2341 명)
- 월 평균 송금액은 3백만 원 ~5백만 원, 경제적으로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음
-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다 외로움이 겹쳐 우울증, 상습적 음주 등으로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 발생
- 기러기 아빠의 유형
 - 원조 기러기 아빠: 1년에 한 두 번 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 들을 만나러 감
 - 독수리 아빠: 재력이 있어 언제든지 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감
 - 펭귄 아빠: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 공항에서 손만 흔드는 아빠



5)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의 탄생

- 1969년 동양방송(TBC) 라디오 드라마 <기러기 아빠> 인기리에 방송
- 김중희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자 노래로 만들어진
그 당시 있었던 국제적 이산과 맞물려 큰 인기를 얻음
- 1970년 권혁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영균, 윤정희 등을 캐스팅하여 영화로 제작



9. 성공적 산업화와 보통사람들의 꿈을 그린 <님과 함께>

1) 경제발전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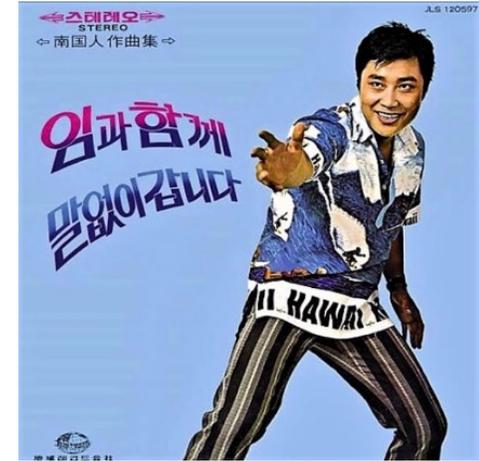
- 1962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차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노동집약적 수출산업화 전략 성공

2)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도 파견

- 1963년~1978년까지 8375 명의 광부와 1963년~1977년까지 1만 371 명의 간호사 파견
- 1977년 광부와 간호사들이 1억 164만 달러 국내 송금

3) 중화학공업화 전략 추진

- 1973년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비철금속 등 6개 중화학 전략업종 육성전략 발표
 - 수출진흥은 물론 유사시 무기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둠
- 1973~1979년까지 제조업 16.6% 성장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룸
 -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1960년 초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 수준에서 1969년 200달러, 1974년 500 달러, 1979년 1647 달러로 급증



6) '님과 함께'의 탄생

- 작곡가 남국인, 밤낮시 하러 포항을 가다 충북 옥천에서 형형 색색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야산 마을을 보고 '평화로운 그림'처럼 느낌
- 그 감흥을 작사, 작곡하여 월남전에 다녀온 가수 남진에게 부르게 함
- 1972년 지구레코드에서 발매한 이 노래는 경쾌한 음악에 세련된 춤으로
그해 TV 최고 인기곡
- 원조 '오빠부대'인 나훈아, 남진 팬클럽이 결성되어 경쟁



10. 억압적 유신체제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노래한 <고래사냥>

(최인호 작사, 송창식 작곡, 송창식 노래, 1974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삼등 완행열차 가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
조그만 예쁜 고래 하나가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1) 야당, 재야, 학생들의 도전에 직면한 박정희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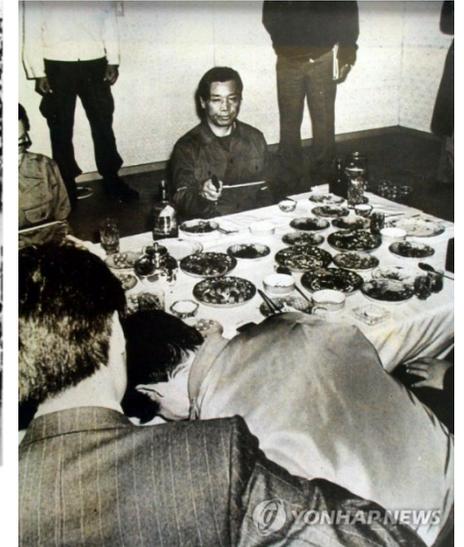
- 박대통령, 경제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강력한 통치력 행사
- 야권은 한일국교정상화, 3선 개헌 등을 두고 거침없이 비판

2) 유신체제의 성립과 체제의 경화

- 1971년 대선 후 야권의 도전에 대한 민주적 관리가 어려운데다, 북한 발 안보위기 급증, 노동집약적 수출도 어려워짐
 -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 이후 노동운동 급진 과격화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라는 국가총동원체제 구축
 - 대학가 데모와 재야인사의 '개헌청원1백만인서명운동' 전개 등 야권의 비판활동 지속

3) 부마사태와 유신체제의 종언

- 1978년 총선에서 여당 공화당보다 1.1 % 승리한 신민당은 강경투쟁을 추구하는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
- 1979년 YH여공 사태, 박정권 타도운동을 선언한 김영삼 총재 의 NYT 회견, 김총재 의원직 제명 등으로 양측 투쟁 격화
- 부마사태 대처 방식을 놓고 여권 내 균열 발생, 중정부장 김재규의 박대통령 시해로 유신체제 종언



4)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정신과 청년문화의 표출

- 한국의 대학가는 1960년대 말의 미국과 유럽의 반전운동과 체제비판문화의 영향을 받음
- 생머리, 미니스커트, 장발, 청바지, 생맥주, 통기타 등은 한국 청년문화 상징
- 유신체제는 ‘대중문화정화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가위와 줄자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

5) 체제 비판 가요와 ‘고래사냥’의 탄생

- 데모 현장에서 많이 부른 노래는 김민기의 ‘아침이슬’
- 송창식의 ‘고래사냥’은 자유를 향한 젊은이들의 갈망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인기 가요임
 - 1975년 하길종 감독의 영화 <바보들의 행진> 삽입곡



11.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사업과 연계된 <돌아와요 부산항에>

1)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누어진 60만 재일 한국인

- 1945년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출범 후 좌우이념 대결 격화
- 1946년 우파 한국인 ‘재일조선인거류민단’ 결성
- 1955년 ‘조련’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으로 개칭



2) 조총련계 문세광에 의한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1974년) 발생

- 그는 수습책 하나로 박대통령에게 재일 조총련계 모국방문단 사업 설명



3)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조총련계 모국방문단 사업

- 1975년 9월 13일 제1 진 700명 김포공항 도착, 1975~1979년 까지 매년 4~5천 명, 2000년까지 모두 4만 9천 명 모국 방문



4) '돌아와요 부산항에' 탄생

- 1969년 김성술 작사, 황선우 작곡, 김성술 노래 '돌아와요 충무항에' 유니버설 레코드에서 취입, 1971년 12월 사망
- 작곡가 황선우는 가사를 일부 손질하고, 제목도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변경, 1972년 조용필이 취입했으나 별무 반응
- 1976년 조용필이 재취입한 이 노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 방문사업과 연계되어 크게 히트
 - 부산의 다방, 리어카 레코드상을 중심으로 트롯에 고고리듬 을 가미한 이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을 강타

♪돌아와요 충무항에♪

꽃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세병관 둥근기둥 기대여서서
목메어 불러봐도 소식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아속한 내 님아

♪돌아와요 부산항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